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7월 11일(주일) 제1352호

인천온누리교회 5년 만에 입당예배!

이재훈 담임목사, 서경남 목사 등 리더십 및 성도 참석
지하 2층, 지상 4층 ... 선교와 차세대 양육 집중

인천온누리교회가 지난 7월 7일(수) 5년 만에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운영위원회, 디자인건축위원회, 국내 10개 캠퍼스 담당목사 및 대표장로, 사역본부장 목사, 사역장로, 인천온누리교회 성도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온누리교회 입당예배는 성도의 교제,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건축결과보고, 감사패 증정, 감사의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명에 붙잡힌 교회' (마 28:16-20)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인천온누리교회 새 예배처소는 지금까지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명에 붙잡힌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기영 장로(인천온누리교회)와 서경남 목사(인천온누리교회 담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김기영 장로는 "인천온누리교회는 많은 분에게 사랑과 중보기도의 빛을 쬔다"면서 "그 빛을 갚기 위

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차세대와 이주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경남 목사는 "입당예배를 드리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했고, 설주영 형제(WEB대학청년부)는 "새 예배처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학생(꿈이자리)은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예배드리는데 좋은 공간이 생겨서 즐겁고 기쁘다"고 했다.

새 예배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소감도 남달랐다. 한문자 권사(인천온누리교회)는 "입당예배를 드리기까지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했고, 설주영 형제(WEB대학청년부)는 "새 예배처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학생(꿈이자리)은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예배드리는데 좋은 공간이 생겨서 즐겁고 기쁘다"고 했다.

인천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송도동 194-4)에 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새로 건축한 인천온누리교회 전경.

지상 7,692㎡(2,327평), 지하 6,284㎡(1,900평), 대지면적 4,999㎡(1,512평), 연면적 13,975㎡(4,227평)이다. 인천온누리교회는 2006

년 4월 '선교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국내 8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 홍하영 기자

청년세대 새로운 부흥 '카운트다운!'

현장 예배 730여 명, 유튜브 2,170여 명 참가

2021 카운트다운은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전국 잔치였다. 영적 부흥과 예배, 선교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집회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했다.

2021 카운트다운은 '임재', '거룩', '부르심', '선교', '과송'을 주제로 지난 7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매일 오후 8시에 막 올랐다. 현장 예배 730여 명, 유튜브 채널 2,170여 명이 참가했다.

김요셉 목사(원전침례교회)는 "기적보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는 "하나님의 실재가 삶에서 실현될 때 거룩해진다"고 당부했다. 박지범 선교사

(LAMP지도목사)는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됨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했다. 권성찬 선교사(GMF대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선교"라고 선포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령님께서 직접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성은 자매(여호수아청년부)는 "강사님들의 메시지에 큰 도전을 받았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했다.

/ 김현준, 홍하영 기자

여름 아웃리치 간증 및 사진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2021년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을 모집한다. 공동체의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역 사진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간증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사진은 사역하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 등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 아웃리치 사진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문의: 02-6959-0001

7월 12일부터 영상 예배 전환

CGNTV 또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7월 12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주일예배, 새벽기도회 1~2부, 주중예배)를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

브 채널로 드려야 한다. 성도들의 영상관리를 위하여 영상예배와 더불어 CGNTV 기독교 OTT '풍당' 등을 적극 시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수도권 지역 아웃리치는 비대면 사역으로 진행해야 한다. 2주동안 VR 선교 체험관도 운영되지 않는다.

아부다비 담당목사 이취임예배

김태완 목사 이임, 김도균 목사 취임

지난 7월 2일(금) 아부다비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김태완 목사가 이임하고, 김도균 목사가 취임했다. 이취임예배는 김명훈 장로(아부다비온누리교회)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와 표명환 목사(리아드교회)의 축사, 조셉 파라팔라 목사의 설교, 축하 영상 상영, 김태완 목사의 이임사, 김도균 목사의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완 목사는 이임사에서 "아부다비에서의 모든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으로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균 목사는 취임사에서 "아부다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보석보다 귀한 만남 '믿음의 선배들'

복음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전도자 '이종덕 목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순교자 이종덕 목사님이에요.

이종덕 목사님은 1884년 충남 공주시에 태어났어요. 9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 분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이종덕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감옥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4년 마을 청년들과 함께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갔어요. 그때 부여와 공주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펜워 선교사님과 칠산교회 장기영 장로님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고 칠산교회에 출석했어요.

이종덕 목사님은 공주성경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원산에서 펜워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우며 복음을 전했어요. 일제강점

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의 강압을 받기도 했답니다. 일제의 무시무시한 압박도 이종덕 목사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일제의 눈을 피해 만주로 넘어가 지역 교회를 돌보며 사역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종덕 목사님의 신앙과 전도를 향한 열정은 전쟁도 막지 못했어요. 해방 이후 1945년 강경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사역하던 중에 6.25 전쟁이 시작됐어요. 모두 도망가던 그때 이종덕 목사님은 피난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어요. 다른 사람들의 피난을 돕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신이 목사임을 알리는 명함을 만들어서 인민위원회, 내무서, 공산군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쟁 중에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종덕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해 돌아가셨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해야만 했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이종덕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아프리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고요?

'2021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 함께 해요!

아프리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함께하는 '2021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2021 차세대 희망심기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에요.

2021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은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진행돼요.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7월 셋째 주 예배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저금통을 나눠주면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오는 10월 차세대 각 반 담당선생님이나 목사님께 가져다주면 돼요.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모아준 후원금은 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위, 부르키나파소에 사는 친구들을 돕는 데 사용돼요. 긴급구호식품(식량, 영양식품, 위생용품 등)과 학용품 패키지(교복, 가방 등)를 선물할 예정이에요. NGO 더멋진세상 후원증서도 제공해 준대요.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는 귀한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271-2246

성경, 알고 싶어요!

반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을 ()로 정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켜 쉬는 날을 의미해요(출 35:2).
2.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 가득하고 ()과 ()과 ()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출 35:31).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 낼 만한 ()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출 35:35).
3. 브살렐과 일꾼들은 싹둑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길이는 () 규빗, 너비는 () 규빗, 높이는 () 규빗이었어요(출 37:1).

4. 브살렐과 일꾼들은 싹둑 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었어요. 길이는 () 규빗, 너비는 () 규빗, 높이는 () 규빗이었어요(출 37:25).

*출제 범위(7월 4일~10일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본문)

이름, 연락처, 소속, 주소와 정답을 적어서 이메일(hhao@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성경퀴즈 당첨을 축하합니다!

이시온 학생(대전온누리교회), 권예진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권하진 학생(서빙고 꿈땅), 김지오 학생(서빙고 꿈땅), 윤노엘 학생(양재 꿈땅)

우리들 작품

십계명

이호연

- 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이상한 것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삼, 삼삼오오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사, 사랑 만만다는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육,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 구라치지 말라
십, 십천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쓰기>

십계명은 중요하면서도 외우기 어려운데 설교시간에 숫자로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만의 십계명을 만들어보게 되었어요! / 이호연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마태복음 9장 32~36절

Date. 2.3.수

No.

36.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 방황하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님

이것을 쓴 까닭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다는 말 같아서, 36절을 썼습니다.

기도: 하나님 죄악을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감사합니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

엄마 아빠와 함께 그림큐티를 하고 있어요.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 김하윤 학생(대전온누리교회)



2.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하박국 3:17~19

“저 높은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영혼의 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세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위대한 신앙고백이며, 믿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도전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박국서를 마무리할 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을 읽으면서 감동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박국은 영혼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신뢰를 하게 되었고, 친밀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기

하박국의 고백 속에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만을 기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욥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 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준 도전이었습니 다. 하나님은 그 도전을 받아주셨고 욥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실 때 반드시 이 과정을 적어도 한 번은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 본질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였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만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인간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의무이자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위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를 만들어 낼뿐입니다. 그 어떤 드림이나 헌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하박국이 경험한 믿음의 삶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기

둘째, 하박국은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박국이 기뻐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시적인 뜻입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만큼 신앙의 위기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잊었다면 신앙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 마땅한 존재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온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일을 끝내신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이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조차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이용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기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이미 심판하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일평생 묵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을 진정 기뻐한다면 하박국이 경험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기뻐하기

하박국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에게 계속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견딜 힘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기쁨으로 인한 힘을 ‘사슴’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슴의 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높은 곳을 경쾌하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은 영혼의 발걸음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의 발걸음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발걸음이 다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발걸음과 방향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다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삼하 22:34).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신 32:13).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네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네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신 33:29).

높은 곳은 원수를 이기는 승리자의 발걸음을 가리킵니다. 땅에 속한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죄와 탐욕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발걸음을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 높은 곳을 뛰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발걸음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원제목이 ‘높은 곳을 향하여(Higher Ground)’입니다. 저 높은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영혼의 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새 힘을 얻어 우리의 발걸음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곳을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책들을 모은 성경전서를 ‘캐논(canon)’이라고 한다. 캐논은 표준 혹은 기준이라는 뜻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제시하신

기준을 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따라서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기준인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막상 성경을 펼쳤을 때 40여 명의 저자가 1,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무엇이 기준인지 막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여럿일지라도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뜻을 찾고자 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큰통독>의 저자 주해홍 목사는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위한 27가지 읽기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리 라인을 따라 읽

는 것이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에 다른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시간적 흐름을 설명하는 역사서의 줄거리(story line)를 따라 읽기를 통해 시간, 장소, 인물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시지(plot line) 따라 읽기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 시가서에서 같은 시대의 내용을 모아 읽음으로써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예언, 지혜, 시편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모두 사용한 전인적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에 계시가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창조주, 구세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으며,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것이 확인된다는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이다. 둘째, 성경을 통해 종말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감정적 교류를 통해 그분이 조명해 주시는 회복의 길을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이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그 백성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성경의 각 책 속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작은 이야기들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神爲) 이루려는 것인지, 인간의 방법으로(人爲) 이루려는 것인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중심성(自己中心性)을 따르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설혹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들, 그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택하는 속성이 강하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통독이 숲을 보는 것이라면,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은 각각의 나무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매일의 QT를 통해 주어진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삶을 예배로 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 속 인물들에게 직접 혹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그것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한가? 레슬리 뉴비킨은 선교사나 기독교인이나 모두 교차로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슬람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는 코란과 이슬람 전통문화의 메타네리티브라는 큰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의 창조-타락-구속-완성의 메타네리티브의 길을 걸으면서 삶의 현장이라는 교차로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우리도 교회 밖으로 나오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진행되는 무신론적 세계관의 길 혹은 뉴에이지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삶의 현장이라는 교차로에서 만난다. 선교사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교차로에서 만난 그들을 성경적 세계관의 길로 정중히 초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칼 F.H. 헨리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영적 반란과 도덕적 방탕함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정오의 빛을 내뿜으며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정오의 빛과 같은 견고한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묵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신 기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성경적인 창조세계관의 역할과 사명

정크 사이언스 VS 창조신앙

과학 전문 칼럼니스트 스티븐 말로이가 쓴 <정크 사이언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잘못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분석한 책이다. 정크 사이언스(Junk Science)는 ‘특정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용되는 잘못된 과학적 자료와 분석이라는 뜻이다.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학을 이용한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교수에게 연구비를 줘서 자기 제품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거나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과장해서 공표하는 것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 기업의 유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서 문제가 된 것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부른다. 창조과학자들을 기독교 신앙을 위해 과학을 악용하는 광신적인 과학자들로 취급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과학의 법칙들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학 법칙들이 하나님의 창조신앙과 모순될 수 없음에

도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 과학과 교육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을 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발붙일 곳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에 이르는 과학 혁명 시대의 주역들에 의해 천동설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과학이론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진화론은 생명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은 될 수 있지만,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모든 것의 기원을 하나님 대신 설명하는 패러다임이 되어버렸다. 진화론 패러다임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 모순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 자체가 과학이 아닌 무신론적 철학이며 무신론 신앙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지구과학도 진화론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현재 지구의 지형들은 거대한 물의 움직임과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격변적으로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진화론 패러다임에 갇힌 관조론은

아주 오랜 시간 서서히 현재의 지형들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 중에도 진화론 패러다임으로는 현재의 지형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운석 충돌의 격변적인 사건으로 현재 지구 지형들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창조과학 분야에서는 대홍수 격변 사건이 지구과학의 모든 이론을 수용하면서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지구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있다.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어떤 과학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설계를 인정하면 더 좋은 과학이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진화론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과학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설계조차 진화론적 패러다임으로 설명해야만 과학적 연구로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과학자들은 사이비 과학자라는 비난과 배척을 받으면서 과학과 교육의 영역에서 창조신앙을 전파하고 있다. 창조과학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들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 동일한 도전과 비난을 받고 살고 있다. 예수님

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이다. 진화론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삶이다.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선 성도라면 과학의 영역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비난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온전한 신앙은 두려움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창조세계관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세상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심과 복된 삶을 누리는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필규 피택장로
이충공동체, 입시학원장, 지구과학 강사)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최근 주식과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래서인지 순예배에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주 식과 코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순장님과 순 원들이 사람이 좋아서 반응이 딱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됩니다.”

근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식과 코 인 투자가 열풍(烈風)을 너머 광풍(狂風)이 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 현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을 정도다. 올해 보도된 한 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마약 과 도박처럼 주식 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20대 가 무려 223% 늘었다. 같은 맥락에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과 ‘빚투(빚내 서 투자한다)’ 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 고 있는 것도 지나친 투자 열풍이 일으킨 또 하나의 단면이다.

물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동의하듯이 투자 자체가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다. 지금 도 세상에서 훌륭한 크리스천 기업가들과 투 자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 투자자들일수록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를 지지하면서 코인에 대해서 그다 지 낙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돈이야 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도 주 식과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 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 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 업난과 재정난 등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 청년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 국 성공으로 귀결되는 돈과 소유와 매우 밀접 한 연관이 있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돈에 대 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엄밀히 따지면 성 경에서는 돈을 극히 경계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큰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축복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다. 돈이 갖는 본연의 가치는 중립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구제와 섬김, 하나님 나 라 확장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

에서 돈은 매우 유익한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 고자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그들에게 돈 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축복의 수 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경제 관과 재정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돈을 막연히 축복으로만 여긴다거나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에 만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돈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돈은 가치중립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나 태 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일단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딤후 6:10).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밖에 없는 유혹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나친 욕심을 삼가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로 투자하고 있는 마음을 겸손히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식이나 투자 때 문에 삶의 관심이 온통 그곳에 쏠려 있다든지 새롭게 시작한 투자로 인해서 내 삶의 질서와 신앙의 영역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야 한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 심과 사명에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한다. 순예배 에서 조차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나도 모 르게 혹은 자꾸만 주식이나 투자 이야기를 하 고 있다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 다. 아직 충분한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질 문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 하신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연합해 서 세상이 줄 수 없 는 평안을 가장 큰 보상으로 누리는 진 정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



박천중 목사 (길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의 상담가

“남편이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고 집중하지 도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남 편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에 집중해 줬 으면 좋겠습니다. 신혼 같은 낭만까지는 아니 더라도 최소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고, 서 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에 집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 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중년 남성이 심적인 어려움이 있 어서 상담실에 찾아왔다. 그는 상담 시간 대부 분을 자기 이야기만 했다. 상담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야기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남성은 그렇게 1시간 정도 자신의 이야기만 털어놓고 상담이 마무리되었다. 그는 상담실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어 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최고의 상 담사이십니다”라고 피드백했다. 상담 시간 내 내 상담사가 했던 것은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뿐이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그 말에 공감한다는 표현으로 중간중간 “아 그랬 군요”, “힘드셨겠어요” 등의 추임새를 넣었을 뿐이다.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해주는 상 담사의 행동이 중년 남성에게 심리적 안정감 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

는 능력이 있다. 상담사가 했던 역할을 부부가 서로에게 할 수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헌신된 청자도 될 수 있고, 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화자도 될 수 있 다.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줄 수 있다.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부부의 상호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부 는 결혼 관계에서 평생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 간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호기심과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자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긍정적 상호 작용’의 선순환을 누리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있는 부부 관계 는 ‘부정적 상호 작용’을 주고받고 있을 것이 다. 배우자가 보이는 행동은 상호 작용의 결과 인 경우가 많다. 남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 고, 아내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부부만이 알고 느끼는 어떠한 상호 작용에서 형성된 행 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집중하지 않는 남편’ 이 라는 현상적인 결과만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부탁할

때는 평가 가능한 기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내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은 상대 배 우자가 쉽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 은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서로의 기대 수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필요’를 전 달하는 것이 좋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행복 한 부부는 자신의 기대와 요구가 상대방을 통 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반면 자신의 기 대와 요구가 좌절되면 불행감을 느낄 수 있다.

부부가 대화할 때 서로 평가 가능한 수준의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행복감 수준을 높일 필 요가 있다. “5분 정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 세요”, “내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지 말아 주세요”, “내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 세요” 등 배우자에게 자신의 기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는 이유에는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탓도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호기심과 궁금증 을 계속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에 대 해 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배우자 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미 상대 배우자는 이야기의 결말과 의미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대화 내용과 패 턴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빠른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판단 이 문제가 된다. 사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습관, 식성, 취향 등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대화를 시도할 때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배우자를 기계적으로 인식하 고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날마다 호 기심과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자의 말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부가 되 어야 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시 5:1~2).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고 ①

세계관 전쟁, 왜 부부인가?

부부라는 중대하고 아름다운 영역을 지켜야 한다!

조준목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목적과 의미, 질서를 갖는다. 그 질서대로 경영해갈 때 진정한 성취와

행복,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질서는 과학과 철학 등의 일반 학문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기초로 훈련하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도덕,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취다. 세계관 속에서의 질서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질서의 본질을 회복해가면서 그 시대 문화와 인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할 때 우주, 종교, 인간, 과학 등 거대한 주제를 다룬다. 그에 비해 부부라는 주제는 미시적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부 문제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부부라는 영역에는 우리가 알고 따르고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이고 공적인 질서가 있다. 흔히 사람들은 부부가 될 때 특별한 연구나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결혼할 때 그랬다.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의 권유로 부부코칭을 받았는데 그 코칭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감정, 내적인 확신만이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자 필수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하고 오자마자 부부코칭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우리 부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질서와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의견 차이가 있거나 상대의 가정과 같은 예민한 부분을 다룰 때 더욱 서툴렀다.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와 교육, 훈련은 부부됨을 위해 꼭 필요하다. 준비 없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자격증 없이 중장비를 다루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대하듯 상대를 대한다.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가족을 대하듯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질서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 사회 부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부에 대한 유머 대부분이 잘못된 인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이지만 조금 나은 축에 속하는 것을 골라 예시를 들어 보겠다.

“아내가 거울을 보며 우울해하고 있었다.
‘여보, 나 못생겨지는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마. 당신은 그 얼굴을 거울 볼 때만 보지. 나는 맨날 봐!’”
남편이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감성적이고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유치원에서 부모들이 참관하는 수업이 있었다. 선생님이 동물들에 대해서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토끼는 여우를 무서워하고, 여우는 늑대를 무서워하고, 늑대는 사자를 무서워 한 대. 사자는 동물의 왕이거든. 그런데 사자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어. 그게 뭘까?’

이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암사자입니다.’”

부부와 관련된 유머 대부분이 서로를 두려워하고 의심하거나 결혼을 후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부에 대한 의무와 책무를 짐처럼 여기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도 많다. 그런데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여전히 사랑받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멈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이 나타난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화 ‘타이타닉’ 역시 비슷하다. 이 영화가 아직도 사랑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부부는 매우 놀랍고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공상과학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결혼은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단 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축복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다.

부부, 포기할 수 없는 기름진 축복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다”라고 축복하셨다. 가나안 땅의 축복 중에서도 부부라는 영역은 포기할 수 없는 기름진 축복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규칙, 질서를 배워야 한다. 때로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나보다 경쟁자나 적이 더 잘 알고 한다. 인간을 질투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려는 사단이 부부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부부 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고고한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영역을 공격하고 있다. 한 사람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법, 제도 전반을 공략하고 있다. 그 전력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는 곳을 보면 그 중심에 부부가 있다. 부부라는 영역이 세계관 전쟁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격이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젊은 세대가 성경적 관점과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부부라는 중대하고 중요한 영역을 중립적인 영역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지켜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혹은 무시한 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겨우 결혼제도 형태만 유지한 채 본질을 잃어버린 부부가 만연하다.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많은 영역을 배운다. 따라서 부부의 실패는 자녀의 실패로 이어진다. 부부가 성경적 관점과 질서를 잃어버린 모습은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된다.

성경은 분명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말씀을 한다. 우리는 지식 없이 동거하였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사단에게 속아 축복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 이제 그 영역을 되찾아야 한다.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사단에게 한 방을 먹일 때가 왔다. 기독교 세계관은 탁상공론이 아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자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고후 10:4-5).

부부라는 그 중대하고 아름다운 영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싸움과 정복과 승리를 시작해야 한다.

(계속)

대전 청년전도집회 ‘The One’

7월 11일 오후 2시 30분 대전온누리교회 본당

대전온누리교회 드리머스청년부가 청년전도집회 ‘The One’을 개최한다. 7월 11일(주일) 오후 2시 30분 대전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집회실황을 대전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청년전도집회 ‘The One’은 ‘구원의 길’, ‘믿음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 ‘한 걸음’을 주제로 진행된다. ‘구원의 길’에서는 나무엔(CCM 가수) 특순, 박진아 작가 샌드애니메이션, 한화수 목사 ‘구원’을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믿음의 문’에서는 가수 효린(씨스타)의 특순, 박진아 작가 샌드애니메이션, 한화수 목사 ‘믿음’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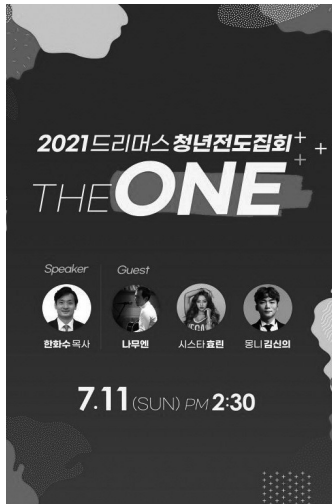
목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에서는 가수 김신의(몽니) 특순, 박진아 작가 샌드애니메이션, 한화수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설교한다.

‘한 걸음’에서는 축복송 및 꽃드림, 선물 증정, 동행카드 작성, 축복기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한화수 목사(드리머스청년부)는 “청년전도집회 ‘The One’은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자리”라면서 “전도대상자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TV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

8월 31일까지 CGNTV 셋탑박스 선물

CGNTV가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역교회, 국내외 선교사, 일본 무목 교회 등에 CGNTV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를 선물하는 캠페인이다. 6월 22일(화)부터 8월 31일(화)까지 이어진다. CGNTV 셋탑박스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한국, 미주, 일본, 중문 채널을 HD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QR 코드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02-796-2243)로 신청하면 된다. 캠페인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05904)로 약정한 셋탑박스 가격을 입금하면 된다. 한 대당 15만 원(일본 제외 해외배송은 배송비 5만 원 추가)이다. 문의: 02-796-2243



“미혼 한부모 가정을 응원해 주세요”

CGNTV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CGNTV가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혼 한부모 가정을 응원하는 뜻깊은 캠페인이다. CGNTV 실시하는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은 ‘러브더월드’와 함께 미혼 한부모 가정을 후원하는 운동이다. 러브더월드는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가정과 자녀들을 돕는 비영리기관이다.

러브더월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르바이트 자리와 후원이 많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0-601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

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다시보기 가능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지난 7월 9일(금)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

씀 생활’ (이하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선보였다. 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했다. 성도 600여 명이 시청했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은 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은 목회자와 성도가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

는 프로그램이다. ‘QT잘롱’, ‘궁금해요 목사님!’, ‘어쩌다 시인’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호영 목사, 이기훈 목사, 여성민 목사가 출연했다. 이무송 집사가 특별게스트로 참여했다.

문의: 010-4030-3214

/ 홍하영 기자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 되겠습니다”

김포M센터 이주민 14명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김포M센터 이주민 14명(미얀마 11명, 방글라데시 3명)이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료했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됐다.

김포M센터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이주민들이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한 김명숙 선교사(김포M센터)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 덕분에 이주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고, 강성 불교 신자들이 결신하는 은혜가 있었다.

배우엔 자매(미얀마)는 “남편에게 더 좋은 아내,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도누비 자매(방글라데시)는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내적치유학교 61기 참가자 모집

7월 23일부터 매주 금, 토 온라인

내적치유학교 6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7월 23일(금)은 오후 3시, 24일(토)과 30일(금), 31일(토)은 오후 4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내적치유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성품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치유와 회복’, ‘역기능 가정의

회복’, ‘관계기술과 수치심의 치유’, ‘관계회로와 감사 나누기’, ‘애착의 고통과 회복’, ‘성숙함과 동기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의 회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OCC공동체), 최용준 목사(강남B공동체), 오은규 목사(성동광진공동체)가 강의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10-3909-0195

어린이신문 작품 모집

차세대 글, 시, 그림 등 이메일 접수

온누리신문에서 어린이신문 지면에 들어갈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A4용지 기준 2~3줄),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코너에 게재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들이 보내준 작품은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문의: 02-6959-0001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 모집

7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2021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팀을 모집한다. ‘어!벤처스’는 국내외 사회 이슈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청년을 위한 벤처대회다.

‘어!벤처스’에 선발된 12개 팀은 분야별 전문 멘토에게 밀착 멘토링을 받는다. 상금 1,800만 원, 후속 멘토링,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전액 장학금 등도 제공된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하려면 7월 15일(목)까지 어벤처스 네이버 공식블로그(blog.naver.com/aventure2016)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비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없고, 팀의 핵심 멤버 한 명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문의: 010-4081-4682

새가족 수료

대상: 2021년 4월 1일~2021년 6월 30일 등록 성도

강남A 김종수 배계령 윤서연	양재 고미숙 김순녀 김진용 이인숙 최우진 황인정	정수경 진성범
강남B 김성은 정은애 정종임 최유미 최 화	서초A 박수정 박현서 박효은	송파B 강동완 방현준 양은실 최정녀
강남C 이종삼 최은희 최현희 홍순택	서성민 신은향 유민경 이명진 장준양 정미선	분당B 이성운
강남D 장정인	서초B 이정은	푸른누리 김지혜 박두희 박민제 박상태 서주현 안재한 이강성 이수진 이하나 정혜운 최현형
강남E 조성희	서초C 차보경	특별한초대 강일곤
경기A 신태성 임성수	송파A 김민정 김수경 김은영 김진섭 송가영 임하린 정가영	
과천의왕 김숙자		
도곡 조재성		

